◇사진은 작년 5월 진상규명을 위해 혈서를 쓰는 장면

쌓아지는 기념탑

현장보도 故 이철규 열사 추모현장을 찾아

지난 89년 5월 산화한 故 이철규열사의 반미자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주지역에서는 추모사업준비위원회가 발족, 조선대학교에서는 6일부터 11일까지 추모행사를 실시하는등 여러가지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이러한 광주지역 추모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올해는 일하다가 몇번을 뛰쳐나갈지 모르겠다. …나도 죽어서 망월동에 뼈를 묻어야 겠다."

광주에 내려가서 처음 찾은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광주시민들의 저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의 분출 확대로 수세국면에 몰렸던 노정권은 문목사방북, 5·3동의대 사태를 계기로 전체 민족민주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이러한 의도로 80년이후 민족민주운동의 포문이 되어 왔던 5월투쟁, 특히 반미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의 투쟁을 무마시키려 했으며 이러한 제반 조건들은 이철규 열사의 죽음으로 결국 어설프게 귀결 되었다.

이철규 열사의 의문사는 숱한 의혹들을 남기고 있다. 그중 가장 의혹시되고 있는 부분은 '간첩단 조작' 사건이다.

작년 진상규명투쟁과정에서 '애국학생 故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진상규명과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하: 범국민위)가 간행한 '故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는 자료에는 간첩단조작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실려있다.

"이돈명총장과 김기택, 김수남교수를 연루시켜 '반국가단체 구성예비음모 또는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심증이 갑니다. 동생에게 이원호씨와의 관계를 추궁, 민주조선 편집지원금(1천8백만원의 사용용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이하:추모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말하며, 덧붙여 "또다시 허위 날조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킴으로 민중의 투쟁을 무마시키려는 획책에대해 이철규 열사는 죽음으로 맞서 민중을 포위해 들어오던 공안정국의 망을 뚫는 돌파구로써 작용했다"고 말맺었다.

역사의 흐름은 한 개인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개인의 죽음이 사회구조에서 잉태된 필연적인 죽음이었다면 민중들의 억눌린 투쟁의지를 모아내는데 계기로써 작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역사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광주에서는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이 싹트고 있고 작년 진상규명투쟁을 평가하면서 역사의 변화, 발전의 계기로 위치지으려는 노력들이 추모사업회를 비롯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도 되고 있다.

간첩단 조작 사건 의혹의 꼬리 물어
정신계승 위한 '반미예술상' (가칭) 기획

"우리 추모사업회의 방향성은 억울한 의문사를 당한 열사의 진상규명을 그가 죽은 뒤에라도 끝까지 밝혀 내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이 시대의 고난을 상징하는 죽음이었음을 인식하고 그의 사상, 그가 외쳤던 반미자주화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꾸려진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의 준비위원장인 문병란(조선대·국문)교수는 추모사업회의 투쟁방향성과 의의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모사업회들의 한계인 단순 추모사업에서 탈피하여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현재 추모사업회의 진상규명사업은 뚜렷한 진전은 없으나 진상규명을 위해 제보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조대부속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이 열사의 주요 장기부분과 해부때의 비디오, 자료사진등의 증거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6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되는 추모제 행사를 조선대총학생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 추모비 건립, 문집발간, 소식지 발간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생활속의 반미의식을 예술로 담아냄으로써 열사의 정신을 대중들에게 설파하는 계기로써 준비했읍니다."라고 추모사업회 진상조사 실무담당자인 박효양은 '이철규열사 반미예술상(가칭)'의 기획의의를 밝혔다.

이번 추모제 기간에 정식으로 공포되는 이 예술상은 문학·음악·미술등 모든 부분을 작품 영역으로 하고 91년도, 추모2주기때부터 작품심사에 들어 갈 것으로 계획이다.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농악이라든가 마당굿은 서구의 문화와 달리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원시공동사회와 농경사회의 전통적 문화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민족적문화이고, 대학내의 양귀신을 몰아낸다는 외세문화배척의 전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반미자주화 투쟁과 연결된다."라고 이번 이철규 열사 추모행사 기간에 행해질 위령제를 비롯하여 '민자박살' 등의 공연이 이철규 열사의 반미자주화 정신계승의 일환으로 실시 됨을 말했다.

한편 작년 정부의 대학언론에 대한 5·6조치 이후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철규열사가 살아 생전에 마지막 작업을 했던 민주조선에 대한 탄압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

"제2호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읍니다. 광주지역 출판·제본소를 경찰 20여명이 배포당일까지 탐문수사를 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몰래 제작을 해서 경찰들을 깨끗이 속여 넘겼읍니다. 그리고 그후에 경찰서에서 다른 사회문제는 다 다루어도 괜찮은데 반미 만은 다루지 말아달라는 부탁전화가 왔었읍니다."라고 민주조선 특집부장은 대학언론 탄압과 현정권에의 취약점인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폭로하는데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를 말해 주었다.

"80년 광주항쟁만큼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컸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 집계로 시민들의 성품현황이 진상규명의 열기가 높았던 15~17일 사이에 80여명의 각계, 각분야 남녀노소가 식사에서부터 담요까지 보내왔읍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지쳐 있을때 시민들은 술을 마시며 쉬다가 새벽 4시에 전경들에게 돌은 던져 싸움을 걸기로 했다."며 조선대 영문과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작년 이철규열사 규명투쟁이 범 시민적으로 호응을 얻었다고 회상했다.

항상 투쟁은 패배로 그치든, 승리로 이끌든 우리에게 경험상의 교훈을 주는것 같다. 특히 투쟁들을 올바로 평가하는 작업이 있을때 그 오류와 성과는 나타난다.

작년의 진상규명투쟁에 있어 가장 큰 성과물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반응을 일으켰으면서도 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던가?

"투쟁방향이 약간 소모적이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중의 역량 축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살인진상규명, 살인자 처단 투쟁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쟁의 관점이 희석화되어 적들의 구도자체에 먹혀들어가, 실제로 뚜렷한 성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조선대 총학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민중의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혁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진상규명', '노정권퇴진'이라는 저급한 단계의 투쟁 방향성을 내세웠음과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지 못했다는 데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제 그러한 오류들을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전대협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을 극복하고 작년과 같은 혁명적 정세를 이끌기 위해 5월을 반미자주화·반독재민주화 투쟁의 달'로 설정하고 민족자주화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올바른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인성記者〉

"올해는 일하다가 몇번 뛰쳐 나갈지 모르겠다. …나도 죽어 망월동에 뼈를 묻어야 겠다."

아저씨의 얼굴은 이땅 모든이의 삶

마당바위

정 용 우 〈사학·2〉

내가 알게된 노동자아저씨 — 새날을 여는 새벽에 서서

며칠전 우연치않게 동국대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선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규탄 및 세계 노동절 쟁취를 위한 수도권지역 노동자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제까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한 노동자상을 떨쳐버리고 진정 노동자들의 의식과 왜 노동자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서야만 하는가를 느끼고자 하는 바램으로 갔었다. 당시 동국대에는 현대 중공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함께 울산 시가지 전체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내용의 속보와 동맹휴업을 알리는 대자보가 온통 사방을 뒤덮고 있었다. 상황은 일련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것 같았고 또 나도 어느 순간엔가 전쟁을 준비하는 이처럼 느껴졌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관념 뒤로하고 우선 내 뇌리속에 꽉차 있는 노동자를 보려고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면서 물어보고 다녔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 간부가 언뜻 귀띔해 주었다. 조금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수이지만 직접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대했었다.

밤이 되면서 준비된 프로그램에 맞추어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생각보다는 무척이나 적은 인원이었다. 하지만 도서관 3층에서의 사수대 결의대회 열기는 무척이나 뜨거웠고 모든 사람이 기필코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사상적 통일을 이루어 내고 있는것 같았다.

"87년 이전에는 몇푼 더 받자고 하던 일이 89년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던 일로 그리고 지금 1990년에는 착취와 노예의 사슬을 끊고 인간해방을 이루기위한 이땅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로 시작되는 서노협 간부의 열띤 인삿말은 모두를 더욱 하나로 묶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후 새벽 2시 부터는 교내 출입구의 규찰이 있었다. 우리 학교 문리대 학우들과, 서노협 북부지구 그리고 인노협의 노동자들은 함께 규찰을 서게 되었다. 새벽이라 찬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었다. 커다란 대문의 안쪽에 자그마한 모닥불을 지피면서 규찰은 시작되었다. 주위에 주택가가 있고 또 우리의 신체적 조건도 고려해서 조용히 규찰을 서기로 하였다. 모닥불 주위의 눈동자들은 불빛에 비추어서 인지 몹시도 이글거리며 힘찬 기백들이 엿보였다.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하나하나 얘기 할 때에는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기도하고, 기뻐서 생글거리기도 하였다. 특히 45세의 노동자의 뜨거운 중동 사막 한가운데의 사우디 노동자로, 빚만 늘어가는 축사의 주인으로, 그리고 끝내는 이땅에서 가장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산업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는 노동과 소외 그 자체였다. 평생을 자본가와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아저씨의 삶은 진정 이땅 4천만 민중의 삶 그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노동해방 투사로 우뚝선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끊기지 않는 민중의 힘찬 맥박 소리를 듣는 듯 했다. 그리고 이제 천만 노동자는, 서노협의 간부가 그랬고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랬들이 4천만 민중의 이해 대변하고자 하는 것을 가슴 절절히 느꼈다. 그들은 이제 4천만 민중의 목을 쥐어짜는 경제 위기의 주범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고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민중의 참 세상을 쟁취하는 우리의 희망임을 그들 스스로가 당당히 선포한 것이다.

간간히 와서 재롱을 부리고 가는 백골단에 아롱곳하지 않고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힘찬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새벽은 그렇게 길어만 갔다.

"내 평생 소원은 진상규명"

故 이철규열사 아버님 이정진씨를 만나

인터뷰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버스에서 내려 저수지를 돌아가면 20여채가구가 모여사는 작은 마을이 나온다.

전통적인 남도의 체취가 물신 풍기는 이곳이 바로 이철규 열사가 태어난 관동부락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나는 직접 당한일이지만 학생들, 시민들은 철규 하나를 위해 싸웠는데, 진상규명도 못하고 우리가 장래를 치뤘으니… 그 당시에는 장래식을 치루지 않으면 심적인 고통에 못견딜 것 같았습니다."

올해 환갑이되신 이 철규열사의 아버님 이정진씨는 6개월 가량의 진상규명투쟁속에서도 진실을 밝혀 내지 못한 안타까움과 시민들의 호응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다.

"그래도 그놈 죽기는 깨끗히 죽었어, 저놈들의 각본데로 했으면 조금 더 살수는 있었겠지만, 비굴하게 살아가니 보다 차라리 죽음을 잘 택했지."

한 평생 땅과 더불어 살며, 땅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배운 그의 성품이 아들의 곧은 성품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비굴하게 사느니 깨끗하게 잘 죽었어"
민주주의 정착으로 억울한 의문사 막아야
"제 2의 철규가 탄생하지 않았으면…"

"철규의 키가 1 m76cm인데 1m65cm높이의 물에 어떻게 빠져 죽을 수가 있겠읍니까? 철규의 수영실력으로 빠지더라도 충분히 헤엄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철규는 달리기를 못해 20여명의 경찰을 따돌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철규가 고문을 당해죽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도려집니다. 아예 총을 한 방 쏘와서 죽이지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식에게 작은 상처만 생겨도 걱정을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고문살인당한 그 흔적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과히 당해보지 못한 이들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선 국민들이 투쟁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투쟁없이는 아무런 성과물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진상규명투쟁을 하다가 지쳐 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서글펐지만, 학생들이 동기를 위해 싸우다가 다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욱더 아파옵니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제발 제2의 이내창이나 철규가 탄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재민 운전기사등의 목격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루바삐 재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라는 말에서 이철규 열사가 외치던 식민지 조국, 바로 이땅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고난을 느낄 수 있었다.

〈仁〉

'90 여름방학 해외어학연수

공부도, 여행도 짭짤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유명한 광화문영어학교가 이번 여름방학에도 미국, 영국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랭귀지 아카데미의 버클리학교와 필라델피아학교, 탐파학교들과 영국 런던의 횟츠로이 칼라지 오브 잉글리쉬, 인터내셔날 랭귀지센터에 입학하여 학교근처의 친절한 민박가정이나 대학 구내 기숙사에 머물며 3주동안 집중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열흘 쯤 명승지 문화여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코스
기간/1990. 7. 8-8. 6(29박 30일)
모집인원/각코스 30명 안팎
1. 버클리학교/샌프란시스코, 몬트리, 카멜, 로스엔젤레스, 뉴욕, 워싱턴, 버펄로, 시카고, 하와이등
2. 필라델피아학교/필라델피아, 뉴욕, 워싱턴, 시카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하와이등.
3. 탐파학교/탐파, 올란도, 뉴욕, 워싱턴, 버펄로,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등.

◆영국코스
기간/1990. 7. 7-8. 7(31박 32일)
모집인원/각코스 30명 안팎
1. 런던ILC학교/런던, 옥스포드, 브라이튼, 파리, 마드리드, 로마, 나폴리, 폼페이, 제네바, 비엔나, 하이델베르그등.
2. 런던교외FCE학교-코치관광/런던, 옥스포드, 리드캐슬, 캔터베리, 도버, 칼레, 파리, 제네바, 밀라노, 플로렌스, 로마, 베니스, 인스부르크, 하이델베르그, 프랑크푸르트등.

여권과 비자의 수속은 전통있는 (주)세방여행사에서 해 드립니다. 등록 절차 문의는 광화문 영어 학교 언어교육학원으로 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 호텔 뒤·전화(02)737-4641(대)

柳 津 監修
酒井喜孝 編著
宋 丞 鎬 譯著
碩博 大學院 大學入 留學 高考試 就職
英作 英文法 演習 1200題
眞本 英文解釋 演習 1200題
本書의 內容 SIX PART
●이용률을 增進하시오!
百萬社 서울 종로 6가 267

軍·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 위촉처
●타자 행정병
●매월 1회 단독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735-2323
735-9716
관인 유니타자학원
女事務
秘書 타자 經理 O.A
워드프로세스
여상·여고·초·대졸 단기교육 책임취업 (재학생 수강료할인)
732-3375 직통

軍·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 위촉처
●사무자동화병 Office Automation
●일반 행정병 Chart
●매월1회 단독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관인 인성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